

성인의 가족공유시간 유형과 유형별 특성*

A Typology of Family Shared Time of Korean Adult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 수 김 외 숙**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수료 한 영 선***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부

교 수 이 기 영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 수 이 연 숙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교 수 조 희 금

우석대학교 실버복지학과

교 수 이 승 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석 사 윤 용 옥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Professor Oi-Sook Kim

Dep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

Ph.D. Candidate Young-Sun Han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Ki-Young L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Professor Yon-Suk Lee

Dept. of Family Welfare, Daegu Univ.

Professor Hee-Keum Cho

Dept. of Senior Welfare, Woosuk Univ.

Professor Seung-Mi Lee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Master Yong-Ok Youn

* 본 연구는 2010년도 통계청 연구용역 “식사, 가사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공유시간 분석”의 자료를 일부 활용하였음.

** 주저자: 김외숙(kimos@knou.ac.kr)

*** 교신저자: 한영선(youngsun3@korea.ac.kr)

〈목 차〉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선행연구 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Studies on time-use have generally concentrated on the amount of time used by each member of a household in Korea. The quality of family relationships could be associated with the amount and types of interactions between family members. This study examined the time that adults spend with their family members on various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typology of family time and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The data source was the 2009 Time-Use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National Statistics Office. The people involved in each activity were surveyed for the first time in the 2009 survey in Korea. The data from this study included 10,902 diaries that were filled on weekdays by married adults from ages 20 to 59 years. Data from rural households were excluded. Time use w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amily meals, household work and family leisure time. These activities were analyzed using t-test, chi-square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Family time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based on three categories. The four types were named “leisure sharing,” “household work sharing,” “overall sharing” and “non-sharing.” The most common type was non-sha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depended on gender and paid work time.

Based on these results, family and labor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the work-life balance. Policies that focus on men over 40 years are especially recommended.

Key Words : 가족공유시간(family shared time), 가족시간(family time), 성인(adult), 시간사용(time use), 유형(typology)

I. 서론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의 시간자원은 어떤 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증가시키면 다른 활동에 배분되는 시간은 감소시켜야 하는 제로-섬(zero-sum)의 특징을 갖는다(한지수·이연숙, 2005). 만약 노동활동에 많은 시간을

배분하게 되면 그 밖에 다른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감소시켜야 하는 시간의 상호교환(trade-off) 작용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장시간 노동 및 장시간 학습 등으로 상대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여가시간과 가족시간을 포함하는 비시장 노동시간의 부족으로 개인 시간배분상의 불균형 문제, 여가문제, 가족문제, 삶의 질 저하 등의 문

제를 겪어 왔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활동영역 사이에 시간 배분을 조화롭게 하는 과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공유시간의 부재로 나타나는 역기능적 가족문제 및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09년 여성가족부에 의해 시작된 ‘가족사랑의 날’은 수요일에는 정시에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지내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정부부처뿐 아니라 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 초등학교¹⁾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증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가족시간 갖기 캠페인을 펼치며 매주 수요일을 ‘No Game, No TV Day’로 정한 것(이뉴스투데이, 2012)은 ‘가족사랑의 날’의 응용 예라고 할 수 있다.

가족공유시간(family shared time)이란 동일한 장소에서 가족원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승미, 1997)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시간(family time)으로도 불린다. 이 개념은 상호작용 정도에 따라 활동을 공유활동, 병행활동, 개별활동으로 분류한 Orthner(1975)의 구분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한 공유활동뿐만 아니라 집단 상황에서 최소한의 상호작용만 이루어지는 병행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상호작용 여부와 관계 없이 동일공간에서 동일활동을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가족이 공유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어 왔다. 부부가 함께 하는 활동은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 의사소통 및 결속력,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고(Orthner & Mancini, 1990; Snyder, 1979; West & Merriam, 1970), 부모와 자녀의 공유활동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 및 성격발달,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Bianchi & Robinson, 1997), 가족공유활동 중에

서도 특히 가족식사는 자녀의 발달에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Franko *et al.*, 2008), 가족여가는 가족공유활동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분석되어 왔다(지영숙·이태진, 2001; 윤소영·정유희, 2003; 천혜정, 2004).

한편 가족간 공유경험을 시간이라는 객관적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분석하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누구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공유하였는지에 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간 상호작용의 양과 형 등을 정확하게 수량화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서구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시간연구의 대상을 개인에서 가족단위로 확대하여 부부간 공유시간 실태나 부부간 노동일정(노동스케줄)의 일치성 정도를 분석하여 그들이 얼마나 시간을 함께 하고 생활일정이 얼마나 비슷한가를 탐구하고(Bryant & Wang, 1990; Kingston & Nock, 1987; Lesnard, 2003), 자녀돌봄, 자녀 양육 및 교육을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부모시간(Parental Time)의 실태와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Barnet-Verza, Pailhé, & Solaz, 2007; Bryant & Zick, 1996; Larson & Verma, 1999; Yeung *et al.*, 2001). 1996년에 발간된 단행본 ‘Families & Time’(Daly, 1996)은 가족연구에 있어 시간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예라고 할 수 있으며, 2010년의 IATUR Conference에서 발표된 다수의 가족공유시간 관련 연구들(Glorieux, Minnen & Tienoven, 2010; Rizavi & Sofer, 2010)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의 축적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가족공유시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2010년 이전까지는 부부간 공유시간과 부모와 자녀간 공유시간을 분석한 이기영, 김외숙과 구혜령(1995), 이승미(1997)의 연구가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용한 시간자료

1) 울산시 북구 농서초등학교

는 연구자가 소규모로 수집한 것으로 대표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다행히 2009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국민생활시간조사』에 “함께 한 사람”에 대한 항목이 포함됨으로써 행위자의 단위를 개인에서 가족 및 집단으로 확대시켜 시간사용에 공유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통계청의 연구용역으로 ‘식사, 가사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공유시간 분석’(김외숙 외, 2010)이 이루어지고, 가족공유 식사(조희금 외, 2011), 가사노동시간(이기영 외, 2011) 및 여가시간(이연숙 외, 2012)의 실태 및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한 가족공유시간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발표된 연구들은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 가사노동, 여가와 같은 특정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다양한 활동영역을 포괄하는 전반적인 가족공유시간이 어떻게 유형화되고 각 유형들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공유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활동인 식사, 가사노동 및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가족공유시간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이 인구사회학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가족공유시간의 조건을 고찰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이 무엇인지를 논의함으로써 노동정책, 가족정책 및 여가정책 등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공유시간 선행연구

개별 가족구성원의 시간연구에서 나아가 가족간 공유시간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로서 서구에서는 다양

한 주제의 공유시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서비스를 가계생산에 의한 상품으로 보는 관점에서 출발한 모의 자녀 돌봄 시간 연구는 생활시간조사 결과 나타난 주 행동 분석을 통해 어머니의 돌봄노동 평균시간 총량을 산출한 연구들(Bonke & McIntosh, 2005; Kalenkoski, Ribar & Stratton, 2005), 부부간 가사노동 공유시간 연구로 배우자간 가사노동을 함께 한 시간을 분석한 연구들(Barnet-Verzat *et al.*, 2007; Bonke & McIntosh, 2005; Bryant & Wang, 1990; Kingston & Nock, 1987)이 있다. 남성의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여가적 특성과 여성의 가족공유 여가시간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노동적 특성을 분석한 시간 연구들(Freysinger, 1994; Daly, 2001; Larson, Gillman, & Richards, 1997; Shaw, 1997)이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생활시간 행동분류 경계가 모호함으로써 가족공유시간의 혼합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여성들은 가족구성원들의 가족공유 여가경험을 위해 막대한 시간, 에너지 등을 투입하는 ‘노동’을 해야 하므로 가족시간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희생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가족공유 여가시간 연구에서는 가족시간에 대한 참여자들의 지나친 기대와 실제 제한된 환경과의 불일치로 나타나는 가족공유 활동의 제약성, 단순성 등에 관한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공유시간이 가족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가족여가시간이 가족의 상호작용과 유대관계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들(Orthner & Mancini, 1990; Shaw & Dawson, 2001) 및 부부 공유 여가시간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Holman, 1988; Orthner, 1975; Zabriskie & McCormick, 2001; 이기영·김외숙·구혜령, 1995)이 있으며, 개인유지시간으로 분류되어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이나 가족공유 여가시간에 비해 비교적 가족공유시간 연구의 주제로 덜 다

루어진 가족 식사시간에 관한 연구는 최근 가족 식사시간이 가족문제 해결 및 건전한 식습관 형성, 자녀의 학업성취도 향상, 청소년 비행율 감소 등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Cooksey & Fondell, 1996; Eisenberg *et al.*, 2004; Franko *et al.*, 2008; Hofferth & Sandberg, 2001)로 인해 사회학, 의학, 가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가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족공유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생활시간 영역을 기준으로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들도 등장하였는데 이승미(1997)는 가족의 공유모습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생활시간영역에서 가족의 대상별(부부, 모자, 부자, 부모-자녀) 공유시간 실태를 분석하고, 생활시간영역을 기준으로 가족의 공유양상을 유형화하여 공유 취약집단, 소극적 여가집단, 적극적 여가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최근 “함께 한 사람”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식사시간과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조희금 외, 2011),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및 영향요인 분석(이기영 외, 2011), 함께한 사람별 가족공유 여가시간 및 결정요인 분석(이연숙 외, 2012)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족시간에 관한 연구의 저변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해 볼 때 가족공유시간 연구는 주로 식사, 가사노동, 여가와 같은 개별 활동영역별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세 가지 활동영역을 모두 포함한 가족공유시간 연구는 많지 않은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들이 함께 하는 시간의 영역별 실태를 분석해 보고, 세 가지 활동을 토대로 가족시간을 유형화함으로써 가족공유가 어떠한 영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성인의 가족공유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행연구들에서는 활동별 가족공유시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미취학자녀 유무 및 자녀존재 여부, 교육수준, 노동시간, 맞벌이여부 등으로 보고하고 있다.

미취학 자녀존재유무는 부부간 공유시간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아이들은 매우 특별한 삶의 리듬이 있으므로 부모들에게 시간제약을 부과하고, 아이들의 존재는 각 배우자의 가사노동 부담 증가를 발생시키는 반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Gatenby(2004)는 영국의 2000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성인 커플의 부부공유시간을 연구하였는데 성인 부부의 요일평균 공유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나타났고, 주중 공유시간은 2시간 6분, 주말 공유시간은 3시간 30분으로 주말에는 공유시간이 증대되었다. 자녀의 존재는 부부공유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부부 공유시간은 1시간 15분,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부부 공유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나타나 부부의 공유시간에 자녀의 존재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net-Verzat과 그의 동료들(2007)은 프랑스 시간사용 자료를 이용하여 부부의 배우자간 공유를 활동이 일어난 장소, 그 활동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의 존재여부, 활동이 단지 동시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함께 하는 것인지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부가 가장 많이 공유하는 시간은 주중, 주말 모두 수면이었고, 두 번째로 많이 공유하는 시간은 주중에는 TV 보기, 주말에는 식사하기로 나타났다. 부부간 공유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녀로 자녀의 존재는 각 배우자의 가사노동 부담 증가를 발생시키는 반면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감소시키는데 특히 3세 미만의 어린자녀의 존재는 주중, 주말을 막론하고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감소시켰다. Lesnard(2003)도 자녀의 존재는 부모의 타임테이블에 전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 자녀의 존재는 부부간 공유여가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2010)에서는 평일 가족여가시간의 경우 자녀가 있는 가정은 114.1분, 자녀가 없는 가정은 87.1분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이 더 길었다. 김하영(2008)의 연구에서는 자녀 출산 및 자녀 교육시기에 가족공유여가활동 빈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Rapoport와 Rapoport(1975)는 자녀존재에 따른 가족공유시간의 변화를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원의 요구와 자원 변화의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자녀의 존재는 부부간 함께 하는 시간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나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시간에는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와의 공유시간 차이를 연구한 Chalasani(2007)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보내고 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길지만 그 차이가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에서 더 적다고 보고하였다(이기영 외, 2011 재인용). 안동선(1982)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여가유형과 결혼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과 여가를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Barnet-Verzat과 그의 동료들(2007)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교육수준은 부부간 공유여가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인적자본은 배우자와 함께 하는 여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노동시간을 보면 Kingston과 Nock(1987)는 시간일지 분석을 통해 맞벌이 부부와 홑벌이 부부간 공유시간의 비교분석을 시도하고, 맞벌이 부부의 공유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입노동시간과 수입 노동일정은 부부간 공유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는

데 특히 가사노동과 대화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1977-8년 미국 4개 주에 거주하는 2명의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공유시간을 분석한 Bryant와 Zick(199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수입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전통적인 자녀돌보기 시간은 감소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는 가사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증대하였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가 공유하는 활동이 성역할 분리적인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Yeung과 그의 동료들(2001)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소득과 노동시간의 증가는 주중에 그들의 자녀와 아버지가 함께 하는 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주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어머니의 노동시간은 자녀와 아버지의 공유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net-Verzat과 그의 동료들(2007)의 연구에서는 일하는 시간의 증가는 공유여가시간에 남녀에게 같은 범주 안에서 유의한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 역시 가족공유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1981년 미국의 177쌍의 부부간 공유시간을 분석한 Kingston과 Nock(1987)의 연구에서는 홑벌이 가정의 경우 가족공유 식사시간은 남편은 47.6분, 부인은 40.5분으로 나타났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 남편은 42.1분을, 부인은 33분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남편의 가족공유 식사시간이 부인에 비해 길고 맞벌이 여부는 여성의 가족 식사시간에만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가사노동 공유시간(자녀돌보기 시간 제외)은 맞벌이 남편의 경우 16.1분, 홑벌이 남편은 25.1분으로 홑벌이 남편이 맞벌이 남편보다 부인과 함께 하는 가사노동시간이 유의미하게 더 길었다. 부인의 경우 맞벌이는 36.3분, 홑벌이는 50.6분으로 나타나 남편

2) 활동별 부부간 공유시간의 양이 남편과 부인이 각기 다르게 산출된 이유는 남편과 부인이 각각 '인지'한 활동별 부부간 공유시간의 측정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표 1〉 분석자료의 특성

단위: 빈도(%)

변수	구분	전체(9,179)	빈도(%)	
			남(4,267)	여(4,912)
연령	20-29세	460(5.0)	145(3.4)	315(6.4)
	30-39세	2,779(30.3)	1,195(28.0)	1,584(32.2)
	40-49세	3,651(39.9)	1,787(41.9)	1,871(38.1)
	50-59세	2,282(24.9)	1,140(26.7)	1,141(23.2)
	평균(표준편차)	43.2세(8.3)	44.0세(8.0)	42.5(8.5세)
교육수준	중졸	1,496(16.3)	529(12.4)	967(19.7)
	고졸	4,453(46.6)	1,933(45.3)	2,520(51.3)
	대졸	2,927(33.8)	1,589(37.2)	1,338(27.2)
	대학원	303(3.3)	432(5.1)	87(1.8)
경제활동 여부	함	6,757(73.6)	408(93.9)	2,749(56.0)
	하지 않음	2,422(26.4)	259(6.1)	2,163(44.0)
직업	관리자·전문가	1,445(15.7)	959(22.5)	486(9.9)
	사무직	1,113(12.1)	694(16.3)	419(8.5)
	서비스·판매직	1,732(18.9)	646(15.1)	1,086(22.1)
	농림·기능원·장차·단순노무직	2,459(26.8)	1,702(39.9)	757(15.4)
	없음	2,430(26.5)	266(6.2)	2,164(44.1)
노동시간	없음	2,420(26.4)	257(6.0)	2,163(44.0)
	하	2,153(23.5)	978(22.9)	1,175(23.9)
	중	2,570(28.0)	1,644(38.5)	926(18.9)
	상	2,036(22.2)	1,388(32.5)	648(13.2)
	평균(표준편차)	주50.2시간(16.9)	주53.0시간(15.1)	주46.0시간(18.4)
개인 월평균소득	없음	2,310(25.2)	80(1.9)	2,230(45.4)
	100만원 미만	1,549(16.9)	345(8.1)	1,204(24.5)
	100~200만원 미만	2,315(25.2)	1,298(30.4)	1,017(20.7)
	200~300만원 미만	1,593(17.4)	1,316(30.8)	277(5.6)
	300만원 이상	1,412(15.4)	1,228(28.8)	184(3.7)
주휴제도	주1일	2,087(22.7)	1,249(29.3)	838(17.1)
	토요 격주, 주 2일	2,737(29.8)	1,656(38.8)	1,081(22.0)
	기타	1,935(21.1)	1,105(25.9)	830(16.9)
	해당사항 없음	2,420(26.4)	257(6.0)	2,163(44.0)
배우자 유무	있음	8,745(95.3)	4,130(96.8)	4,615(94.0)
	없음(사별, 이혼)	434(4.7)	137(3.2)	297(6.0)
미취학자녀 유무	있음	2,234(24.3)	1,105(25.9)	1,129(23.0)
	없음	6,945(75.7)	3,162(74.1)	3,783(77.0)
미취학자녀수	평균(표준편차)	1.3명(0.5)	1.3명(0.5)	1.3명(0.5)
맞벌이 여부	맞벌이	4,407(48.0)	2,123(49.8)	2,284(46.5)
	홀벌이	4,772(52.0)	2,144(50.2)	2,628(53.5)

과 마찬가지로 홀벌이 부인의 가사노동 공유시간이 유의미하게 더 길었다. 그 밖에 대화시간과 TV시청 시간도 홀벌이 남편과 부인이 맞벌이 남편과 부인이 인지한 부부간 공유시간보다 유의미하게 길었고, 부부의 노동시간과 노동일정의 분리는 부부 공유시간을 감소시키는 변수였다. 우리나라의 실태조사에서는(여성가족부, 2010) 맞벌이 가정의 경우 평일 가족여가시간이 91.1분, 홀벌이 가정의 경우 116.8분으로 나타나 맞벌이 가정보다 홀벌이 가정의 가족여가시간이 약 26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atenby(2004)의 연구에서는 남편, 부인 모두 전일제 노동을 하는 맞벌이인 경우와 남편은 전일제 노동을, 부인은 전업주부인 홀벌이인 경우 부부간 공유시간은 모두 약 2시간인 것으로 나타나 맞벌이 여부가 부부간 공유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가족공유시간은 미취학자녀 유무 및 자녀존재 여부, 교육수준, 노동시간, 맞벌이여부 등 인구사회적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공유시간 유형별 인구사회적 특성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가족공유시간의 특징을 파악하기로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족공유시간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2] 가족공유시간 유형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이 2009년 실시한 제3차 국민생활시간조사 원자료이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혼자 중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로 제한하였고 농가 및 단독가구는 제외하였다. 연령을 20~59세의 성인으로 한정된 이유는 “함께 한 사람”의 분류항목이 ① 혼자, ② 배우자, ③ 미취학자녀, ④ 그 외 가족·친척, ⑤ 기타로 나뉘어져 있어 미성년자녀의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모와의 공유시간을 파악할 수 없고, 노인의 경우 60대 미만의 성인과 비교할 때 상당히 다른 가족구성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기혼자로서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로 한정된 이유는 미혼자의 경우 20~59세 연령이라 하더라도 가족관계가 기혼자와 다른 특징을 고려하였고, 농가를 제외한 이유는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이 관심을 받는 이유 중 상당부분이 사회의 산업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농업생산활동을 하는 가족은 제외하였으며, 가족공유가 가족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단독가구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함께 한 사람”에 대한 조사가 “주행동”에 제한되어 있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주행동”을 분석대상행동으로 하였고, 요일별 비교를 위하여 평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생활시간조사 분석은 요일별 차이를 고려하여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거나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일과 일요일로 구분하는 것이 요일별 차이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토요일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석자료의 특징은 <표 1>과 같으며, 분석에 사용된 시간일지는 14,614부(평일 10,902부, 일요일 3,712부)이다.

2)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활시간자료와 가구원자료를 통합한 후 PASW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족공유시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 백분율 등 기술통계를 활용하였으며, 가족식사시간,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가족여가시간의 세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가족공유시간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공유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활동 중 통계청의 자료에서 공유시간을 알 수

있는 식사, 가사노동, 여가를 가족공유활동 영역으로 선정하고 각각 통계청의 행동분류를 기준으로 중분류의 ‘식사 및 간식’(12), 대분류의 ‘가정관리(4)’와 ‘가족보살피기(5)’, ‘교제 및 여가활동(7)’에 포함되는 활동을 포함시켰다. 이 영역의 활동 중 본 연구의 가족공유활동 목록은 <표 2>와 같다.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노동시간, 월평균소득, 배우자 유무, 미취학자녀 유무, 미취학자녀수, 맞벌이 여부인데 이들 변수 중 연령, 노동시간, 미취학자

<표 2> 가족공유활동 목록

연구 내용	활동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식사	1. 개인유지	12 식사 및 간식	121 가족과의 식사
가사노동	4. 가정관리	41 음식준비 및 정리 42 의류관리 43 청소 및 정리 44 집 관리 4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46 가정경영 49 기타 가사일	
	5. 가족 보살피기	51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52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53 배우자 보살피기 5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5 그 외 가족 보살피기	
여가	7. 교제 및 여가활동	71 교제활동 72 일반인의 학습 73 미디어 이용 74 종교활동 75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76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활동 77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78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79 기타 여가 관련 행동	

<표 3> 가족식사, 가족공유 가사노동 및 가족여가 시간의 기초통계량³⁾

(단위: 분)					
요일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평일	가족식사	10,902	35.27	28.28	30.00
	가사노동	10,902	52.44	93.02	10.00
	가족여가	10,902	52.92	61.21	40.00
일요일	가족식사	3,712	61.38	37.93	60.00
	가사노동	3,712	67.57	93.91	30.00
	가족여가	3,712	127.51	110.66	110.00

녀수는 연속변수로, 나머지는 비연속형 변수로 측정되어 있다. 연속변수의 경우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령은 20대, 30대, 40대, 50대의 네 집단으로 나누고 노동시간은 평균값에 표준편차를 ±하여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IV. 분석결과

1. 가족공유시간의 유형

분석대상 일지 14,614부의 가족식사, 가족공유 가사노동, 가족여가 시간의 점수분포는 <표 3>과 같다. 평일의 경우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평균시간은 약 35분이며 중앙값은 30분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함께 하는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다수의 응답자가 10분으로 답하였는데 일평균 값은 약 52분이며, 표준편차는 93분으로 평균값을 훨씬 상회한다. 이러한 수치들로 볼 때, 가족이 함께 하는 가사노동시간에서의 편차는 개인별로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일평균 가족여가시간은 약 53분이며 중앙값은 40분이다. 평일의 가족공유시간 중 가족여가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각각

50분대로 유사하게 많고, 이 두 가지 활동시간이 가족공유시간 전체의 74.9%로서 약 3/4을 차지한다.

일요일의 경우 가족식사시간은 평균 61분이고 중앙값은 60분으로 나타나 다수가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가족식사에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을 함께 하는 시간은 평균 68분인데 중앙값은 30분, 표준편차가 94분을 나타내 평일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에도 가족이 함께 하는 가사노동시간에 편차가 큰 점을 알 수 있다. 일요일의 가족여가시간 평균은 128분으로 평일에 비해 2.4배 많은 시간을 보인다. 식사나 가사노동을 함께 하는 평균시간이 1시간대인데 비하여 여가시간은 2시간대를 나타내어 일요일에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의 반 정도(49.7%)가 여가인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의 가족공유시간의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가족식사시간,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가족여가시간의 세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은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고,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군집분석은 크게 계층적 군집방법(Hierarchical Clustering)과 비계층적 군집방법(Non-Hierarchical Clustering)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

3) 실태분석을 위해서는 일반화를 위해 가중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군집분석을 위한 기초통계량이므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았다.

〈표 4〉 가족공유시간 유형별 빈도 및 표준화점수

요일	유형	빈도수	가족식사	가사노동	가족여가	점수부호
평일	1	6,848	27.43	14.93	23.33	- - -
	2	2,158	47.48	23.81	140.57	+ - +
	3	483	49.46	376.00	62.38	+ + +
	4	1,413	49.77	167.37	59.21	+ + +
일요일	1	497	80.42	260.93	102.64	+ + -
	2	1,623	41.18	20.53	41.86	- - -
	3	1,052	74.41	55.40	168.07	+ - +
	4	540	79.15	54.70	328.78	+ - +

용한 K-Means Clustering의 경우 비계층적 군집 방법으로 초기에 임의로 만들어진 k개의 군집을 기초로 최적의 군집을 만들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기존의 군집을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군집분석의 경우 각 방법에 따라 군집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군집의 수가 너무 많을 경우 군집의 성향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적정 군집의 수 2~5개 범위 안에서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 시켜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평일을 보면 유형1은 각 영역별 평균점수를 <표 4>에서 제시된 평균점수와 비교할 때, 가족식사시간, 가사노동시간, 가족여가시간 모두 평균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나타내었다. 이것을 부호로 나타내면 “- - -”로 표시할 수 있다. 전체 분석대상표본 10,902개 가운데 62.8%에 속하는 6,848개가 속하는 이 유형을 “비공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유형의 가족공유시간은 평균 1시간 6분이다.

유형2는 가족식사시간과 가족여가시간은 평균보다 많은 반면 가족과 함께 하는 가사노동시간은 평균보다 적은 “+ - +”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족식사시간이 약 47분으로 유형1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다른 두 유형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비해 가족여가가 약 141분으로 다른 어떤 유형보다 특별히 많은 특징을 보인다. 따라

서 이 유형을 “여가우위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3과 유형4는 가족식사시간, 가사노동시간, 가족여가시간 각각이 평균값보다 많은 공통점을 보인다. 따라서 점수부호로 보면 모두 “+ + +”로 표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유형3은 가족과 함께 하는 가사노동시간이 다른 유형들보다 특히 많은 특징이 있으므로 “가사노동우위형”으로 부르고 유형4는 가족식사시간, 가사노동시간, 가족여가시간 모두 전반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이므로 “전반적공유형”으로 부를 수 있다. 이 유형의 가족공유시간은 평균 8시간 8분으로 다른 유형보다 특히 많다.

일요일의 경우 유형1은 가족식사 및 가사노동시간이 평균보다 많은데 비해 가족여가시간은 평균보다 적은 값으로 “+ + -”의 부호를 보였다. 가족식사의 경우 유형2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이 모두 평균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지만 가사노동의 경우 이 유형만 +값은 보이며, 그 차이도 매우 큰 261분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 유형을 “가사노동우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유형2는 세 영역의 평균시간이 모두 전체평균보다 적은 시간을 보인다. 점수부호로 나타내면 “- - -”로서 평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공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분석대상자 전체 3,712명 가운데 43.7%가 이 유형에 속하는데 평일과 마찬가지로 이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가족

공유시간은 1시간 44분이다. 다만 비공유형의 비율이 62.8%인 평일과 비교하면 일요일에는 평일보다 3할 정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유형3과 유형4는 가족식사와 가족여가 영역에서는 평균보다 많은 시간을 보이는 반면 가사노동 영역에서는 평균보다 적은 시간을 보이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 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유형4의 가족여가시간이 유형3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유형4는 “여가우위형”으로 명명하고, 유형3의 경우 비록 가사노동시간이 평균시간보다는 적지만, 유형1

다음으로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반적공유형”으로 명명하였다.

<표 5>는 4개의 유형을 각 활동영역 변수들에 대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요일별로 나누어 각 변수에 대해 군집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어떤 유형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모수적 사후비교 방법인 Scheffé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도 함께 표시하였다.

평일의 경우 가족식사는 비공유형만 다른 유

〈표 5〉 가족공유시간 유형별 세 차원점수의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

요일	변수	유형	평균	표준편차	F
평일	가족식사	비공유형	27.43	a	24.95
		여가우위형	47.48	b	28.03
		가사노동우위형	49.46	b	32.96
		전반적공유형	49.77	b	27.91
평일	가사노동	비공유형	14.93	a	24.11
		여가우위형	23.81	b	33.07
		가사노동우위형	376.00	d	87.98
		전반적공유형	167.37	c	50.60
평일	가족여가	비공유형	23.33	a	26.37
		여가우위형	140.57	b	60.26
		가사노동우위형	62.38	ab	58.00
		전반적공유형	59.21	ab	52.95
일요일	가족식사	가사노동우위형	80.42	c	33.33
		비공유형	41.18	a	34.59
		전반적공유형	74.41	b	32.90
		여가우위형	79.15	bc	30.98
일요일	가사노동	가사노동우위형	260.93	c	86.11
		비공유형	20.53	a	34.09
		전반적공유형	55.40	b	53.82
		여가우위형	54.70	b	56.16
일요일	가족여가	가사노동우위형	102.64	b	71.58
		비공유형	41.86	a	37.67
		전반적공유형	168.07	c	43.03
		여가우위형	328.78	d	72.55

* $p < .05$, ** $p < .01$, *** $p < .001$

형에 비해 적은 차이점이 있으며, 가사노동은 네 유형이 모두 차이를 보이고, 가족여가의 경우 비공유형과 여가우위형이 차이를 보인다.

일요일의 경우에는 가족식사에서 가사노동우위형, 비공유형, 전반적공유형이 각각 다른 차이를 보이나 여가우위형의 경우 비공유형과만 차이를 보인다. 가사노동에서는 전반적공유형과 여가우위형은 서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이들 두 유형과 다른 두 유형들은 서로 차이를 보인다. 가족여가는 집단별로 모두 차이를 나타낸다.

2. 유형별 특성

평일 및 일요일에 각각 네 가지 가족공유시간의 유형을 파악한 다음 요일별로 각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평일을 보면 <표 6>과 같다.

성에 따른 유형분포를 보면 남성의 약 3/4(73.7%)이 비공유형에 속하고 1/5(20.2%)은 여가우위형에 속하며, 그 외 5%가 전반적공유형에 속하며 1.1%만 이 가사노동우위형으로 분류되었다.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다른 분포를 보이는데, 약 반(53.5%)이 비공유형에 속하고 1/5 정도가 각각 전반적공유형(19.8%)과 여가우위형(19.5%)에 속하며 7.3%가 가사노동우위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우위형의 경우 남녀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비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비공유형이 특히 많고 가사노동우위형이나 전반적공유형이 적은 차이를 보인다. 여성이 가사노동우위형에서 남성보다 7배 정도 많은 분포를 보인 점은 남녀의 성역할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을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비공유형의 분포가 높은 점은 동일하나 그 비율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40대(72.0%) > 50대(66.1%) > 30대(51.2%) > 20대(39.3%) 순으로 비공유형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대의 경우 전반적공유형도

1/4 이상(26.1%)이 되고 가사노동우위형(17.7%)과 여가우위형(16.9%)의 비율도 비슷하다. 30대의 경우 전반적공유형이 1/4 정도(25.3%)로 20대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지만 비공유형은 20대보다 많고 가사노동형은 20대보다 적다. 50대의 경우 여가우위형이 28.7%로 40대 이하의 다른 연령대들보다 특히 많은 분포를 나타내며, 가사노동우위형(0.9%)이나 전반적공유형(4.2%)은 다른 연령대보다 적은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분포를 통해 전반적으로 비공유형이 많은 가운데 20대와 30대의 경우 전반적공유형이 많고 50대의 경우 여가우위형이 많은 점과 자녀가 어린 20대의 경우 가사노동우위형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특히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유형별 평균연령을 보면 가사노동우위형 집단이 35.1세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전반적공유형 37.8세, 비공유형 44.3세, 여가우위형 45.5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보면 모든 학력집단에서 비공유형의 분포가 60%대를 보이는 가운데 중졸의 경우 여가우위형에 높은 분포(27.2%)를 보이고 가사노동우위형(1.2%)과 전반적공유형(5.6%)에서는 낮은 분포를 보인다. 고졸집단은 여가우위형(20.0%), 전반적공유형(13.3%), 가사노동우위형(3.8%)으로 중졸집단에 비해 여가우위형의 분포는 낮고, 전반적공유형의 분포는 높다. 전문대 및 대졸 집단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가사노동우위형(6.9%), 전반적공유형(16.3%)의 분포가 높은 특징이 있고, 여가우위형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분포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대학원의 학력을 가진 집단의 경우 여가우위형을 제외하고 다른 세 유형에서 학력에 따른 전반적 경향과 반대의 분포를 나타낸다. 대학원집단을 제외하면 비공유형에서는 학력이 낮아질수록, 가사노동우위형과 전반적공유형에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분포를 보인다.

주당 노동시간을 네 집단으로 나누어 볼 때 노동시간이 없는 집단은 노동시간이 있는 다른

〈표 6〉 평일 가족공유시간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빈도(%)

변수	구분	비공유형	여가 우위형	가사노동 우위형	전반적 공유형	X ² , F (Scheffé)
성별	남성	3,720(73.7)	1,018(20.2)	57(1.1)	255(5.0)	862.728***
	여성	3,128(53.5)	1,140(19.5)	426(7.3)	1,158(19.8)	
연령	20-29세	200(39.3)	86(16.9)	90(17.7)	133(26.1)	1629.942***
	30-39세	1,667(51.2)	451(13.9)	312(9.6)	825(25.3)	
	40-49세	3,191(72.0)	843(19.0)	57(1.3)	340(7.7)	
	50-59세	1,790(66.1)	778(28.7)	24(0.9)	115(4.2)	
	평균(표준편차)	44.3(7.6)	45.5(8.2)	35.1(6.8)	37.8(7.1)	529.142*** c d a b
교육수준	중졸	1,180(66.0)	487(27.2)	21(1.2)	101(5.6)	286.255***
	고졸	3,335(62.9)	1,061(20.0)	202(3.8)	703(13.3)	
	전문대 및 대졸	2,096(60.6)	560(16.2)	240(6.9)	563(16.3)	
	대학원	237(67.1)	50(14.2)	20(5.7)	46(13.0)	
노동시간	상	1913(79.9)	354(14.8)	12(0.5)	115(4.8)	2000.537***
	중	2,263(74.2)	544(17.8)	34(1.1)	207(6.8)	
	하	1,667(64.9)	530(20.6)	40(1.6)	330(12.9)	
	없음	1005(34.7)	730(25.2)	397(13.7)	761(26.3)	
	평균(표준편차)	51.7(16.6)	47.7(16.1)	41.7(16.5)	41.9(18.3)	87.646*** c b a a
월평균소득	없음	1,002(36.1)	665(24.0)	384(13.9)	721(26.0)	1767.875***
	1~100만원 미만	1,184(64.2)	379(20.6)	32(1.7)	249(13.5)	
	100~200만원 미만	1,977(73.0)	483(17.8)	30(1.1)	217(8.0)	
	200~300만원 미만	1,437(75.5)	332(17.4)	21(1.1)	113(5.9)	
	300만원 이상	1,248(74.5)	299(17.8)	16(1.0)	1123(6.7)	
미취학자녀 존재유무	있음	1,154(43.8)	265(10.1)	411(15.6)	805(30.6)	2174.169***
	없음	5,694(68.9)	1,893(22.9)	72(0.9)	608(7.4)	
미취학자녀수	평균(표준편차)	1.3(0.5)	1.3(0.5)	1.4(0.5)	1.3(0.5)	7.707*** a a b a
맞벌이 여부	맞벌이	3,830(73.7)	850(16.4)	48(0.9)	467(9.0)	643.318***
	홀벌이	3,018(52.9)	1,308(22.9)	435(7.6)	946(16.6)	

세 집단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 비공유형이 34.7%로 다른 유형보다는 높은 분포를 보이지만 전반적공유형(26.3%)과 여가우위형(25.2%)에도 각각 1/4 이상이 분포하고 있고 가사노동우위형에도 13.7%가 속한다. 노동시간이 있는 경우 비공유형의 경우 노동시간이 긴 집단일수록 높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세 유형의 경우 노동시간이 짧은 집단일수록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경향을 나타낸다. 유형별 노동시간평균을 보면 비공유형이 가장 길어 주당평균 약 52시간이고 다음으로 여가우위형이 약 48시간이며, 가사노동우위형과 전반적공유형은 약 42시간을 보인다. 이

러한 결과는 노동시간이 모든 유형의 가족공유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Bryant & Zick, 1996; Kingston & Nock, 1987; Yeung *et al.*, 2001)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 없는 집단은 소득이 있는 집단들에 비해 비공유형의 분포가 낮고 여가우위형, 가사노동우위형, 전반적공유형의 분포는 높은 특징이 있다. 소득이 있는 집단 중에서 유형별로 소득의 과소에 따른 일관된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100만원 미만의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비공유형의 분포가 가장 낮고 여가우위형, 가사노동우위형, 전반적공유형의 분포는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인다.

미취학자녀 유무로 나누어 비교할 때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은 가사노동우위형(15.6%)과 전반적공유형(30.6%)이고,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은 비공유형(68.9%)과 여가우위형(22.9%)이다. 미취학자녀가 있을 경우 가사노동이 많아지고, 없을 경우 여가가 많은 점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취학 존재가 가족공유 가사노동을 증대시킨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Barnet-Verzat *et al.*, 2007; Lesnard, 2003). 이와 같은 맥락으로 미취학자녀수 변수의 경우 가사노동우위형은 미취학자녀수가 1.4명이었고, 그 외 비공유형, 여가우위형, 전반적공유형은 1.3명으로 나타나 가사노동 우위형으로 분류된 집단의 미취학자녀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여부로 나누어 보면 맞벌이의 경우 홀벌이에 비해 비공유형(73.7%)에서만 특히 높은 분포를 보이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모두 홀벌이가 맞벌이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가 홀벌이에 비해 가족공유시간이 더 적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Kingston & Nock,

1987; 여성가족부, 2010).

다음으로 일요일의 가족공유시간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표 7>과 같다.

성에 따른 유형분포를 보면 남녀 모두 비공유형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다음으로 전반적공유형의 분포가 많은 점은 동일하나 남성의 경우 비공유형의 비중이 여성보다 좀 더 높다(47.4%). 남성의 경우 비공유형, 전반적공유형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유형이 여가우위형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 비공유형과 전반적공유형 다음으로 가사노동우위형에 높은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성별 유형의 차이는 남녀의 성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볼 때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공유형은 20%대, 여가우위형은 10%대 분포를 보이는데 비하여 가사노동우위형과 비공유형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가사노동우위형에는 20대가 33.7%를 보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여 50대의 경우 3.9%에 불과한 반면, 비공유형의 경우 20대는 29.5%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50대는 52.8%를 보인다. 전반적공유형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20%대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평일의 경우 가사노동우위형과 전반적공유형에서 30대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요일의 경우에는 40, 50대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사노동우위형은 평균연령이 36.9세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평일과 같은 양상을 보였고, 비공유형은 44.9세로 연령이 가장 많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일요일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주도적인 유형은 존재하지 않으나 비공유형과 전반적공유형이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20

〈표 7〉 일요일 가족공유시간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빈도(%)

변수	구분	비공유형	여가 우위형	가사노동 우위형	전반적 공유형	χ^2 , F (Scheffé)
성별	남성	822(47.4)	284(16.4)	142(8.2)	485(28.0)	83.465***
	여성	801(40.5)	256(12.9)	355(17.9)	567(28.7)	
연령	20-29세	57(29.5)	29(15.0)	65(33.7)	42(21.8)	379.430***
	30-39세	368(32.4)	152(13.4)	296(26.1)	319(28.1)	
	40-49세	705(48.6)	231(15.9)	100(6.9)	415(28.6)	
	50-59세	493(52.8)	128(13.7)	36(3.9)	276(29.6)	
	평균(표준편차)	44.9(7.9)	43.0(8.3)	36.9(7.3)	43.3(8.0)	131.746*** b ab a ab
교육 수준	중졸	348(59.1)	81(13.8)	27(4.6)	133(22.6)	152.360***
	고졸	837(45.7)	266(14.5)	217(11.9)	511(27.9)	
	전문대 및 대졸	398(33.8)	178(15.1)	224(19.0)	376(32.0)	
	대학원졸	40(34.5)	15(12.9)	29(25.0)	32(27.6)	
노동시간	상	485(57.9)	95(11.3)	64(7.6)	194(23.2)	198.704***
	중	482(45.1)	154(14.4)	130(12.2)	302(28.3)	
	하	370(43.1)	140(16.3)	83(9.7)	266(31.0)	
	없음	286(30.2)	151(15.9)	220(23.2)	290(30.6)	
	평균(표준편차)	52.8(17.0)	48.5(14.6)	49.0(15.1)	48.1(16.0)	16.918*** b a a a
월평균소득	없음	283(31.4)	130(14.4)	210(23.3)	278(30.9)	157.207***
	1~100만원 미만	319(51.0)	80(12.8)	55(8.8)	172(27.5)	
	100~200만원 미만	490(51.5)	136(14.3)	92(9.7)	234(24.6)	
	200~300만원 미만	294(44.7)	104(15.8)	80(12.2)	179(27.2)	
	300만원 이상	237(41.1)	90(15.6)	60(10.4)	189(32.8)	
미취학자녀 존재유무	있음	227(26.5)	94(11.0)	331(38.6)	206(24.0)	622.204***
	없음	1,396(48.9)	446(15.6)	166(5.8)	846(29.6)	
미취학자녀수	평균(표준편차)	1.3(0.5)	1.3(0.5)	1.4(0.5)	1.2(0.5)	6.627*** ab ab b a
맞벌이 여부	맞벌이	890(48.6)	250(13.7)	184(10.1)	506(27.7)	52.436***
	홀벌이	733(38.9)	290(15.4)	313(16.6)	546(29.0)	

대와 30대에서는 가사노동우위형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젊은 세대의 가사노동우위형 비중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역할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다.

각 유형이 교육수준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면, 모든 학력집단에서 비공유형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는 공통점을 나타낸다. 그런 가운데 중졸이하의 경우 비공유형이 59.1%로 다른 집단보다 특히 높은 비중을 보인다. 전반적공유형의 경우 전문대졸 및 대졸 집단이 32%의 분포를 보여 20%대를 보이는 다른 학력집단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가사노동우위형의 경우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며, 다른 유형에서는 대학원졸업 집단을 제외할 경우 학력에 따른 경향성을 볼 수 있다. 즉 비공유형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고, 전반적공유형과 여가우위형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그 비중이 높다.

각 유형이 노동시간에 따라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면 노동시간이 없는 경우 전반적공유형(30.6%)과 비공유형(30.2%)이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가사노동우위형에도 23.2%가 분포하는 등 노동시간이 있는 집단들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을 보인다. 노동시간이 있는 경우 비공유형에서는 노동시간이 많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전반적공유형과 여가우위형에서는 노동시간이 적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가사노동중심형의 경우 노동시간에 따라 일관된 경향은 보이지 않고 노동시간이 중간인 집단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다. 유형별로 노동시간 평균을 보면 비공유형이 주당 53시간으로 다른 유형들의 노동시간보다 특별히 더 많은 특징을 보인다. 노동시간이 많을 경우 어떠한 공유활동도 많이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족 및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가사노동이나 가족여가 등 특정활동을 많이 공유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 없는 집단은 소득이 있는 집단들에 비해 가사노동우위형의 분포가 높고 비공유형의 분포가 낮은 점이 두드러지며,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과소에 따른 일관된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소득이 있는 집단에서는 비공유형인 경우가 40~50%대인데 비해 소득이 없는 집단은 1/3 이하만이 비공유형에 속한다(31.4%). 소득이 없는 집단의 경우 전반적공유형(30.9%)도 비공유형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낸다. 소득이 있는 집단끼리 비교할 때 가사노동우위형에는 200만원 이상의 집단들이 더 많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 비공유형에는 200만원 미만의 집단들이 더 많은 분포를 보인다. 전반적공유형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집단이 약 1/3의 분포(32.8%)

를 보여 다른 소득집단보다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가사노동우위형에 속하는 비율이 38.6%로서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의 5.8%보다 6배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비공유형에서는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가 48.9%로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경우의 26.5%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분포를 보인다. 전반적공유형 및 여가우위형에서는 모두 미취학자녀가 없는 경우 약간 더 높은 비율의 분포를 나타낸다. 미취학자녀수는 전반적공유형 집단이 1.2명으로 가장 적었고, 가사노동우위형 집단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취학자녀가 존재할 경우 가사노동우위형으로 집중되는 점을 나타낸다(Davey & Paolucci, 1980; Hallberg & Klevmarken, 2003; Spitze, 1986).

맞벌이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면 맞벌이의 경우 비공유형에서만 홀벌이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고, 다른 세 유형에서는 모두 홀벌이보다 낮은 분포를 보인다. 홀벌이가 다양한 공유활동을 많이 하는 유형들에 더 많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식사, 가사노동 및 여가활동을 축으로 가족공유시간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밝히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일의 경우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시간은 평균 약 35분, 가족이 함께 하는 가사노동시간은 약 52분, 가족여가시간은 약 53분으로 평일의 가족공유시간 중 가족여가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각각 50분대로 유사하게 많고 이 두 가지 활동시간이 가족공유시간의 약 3/4을 차지하였다. 일요일의 경우 가족식사시간은 평균 61분, 가사노동을

함께 하는 시간은 평균 68분, 가족여가시간 평균은 128분으로 평일에 비해 2.4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식사나 가사노동을 함께 하는 평균시간이 1시간대인데 비하여 여가시간은 2시간대를 나타내어 일요일에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의 반 정도(49.7%)가 여가인 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가족식사, 가족공유 가사노동, 가족여가시간을 축으로 가족공유시간을 유형화하면 요일에 관계없이 모두 여가우위형, 가사노동우위형, 전반적공유형, 비공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가우위형은 식사, 가사노동, 여가의 세 영역 중 특히 여가공유가 많은 집단이고, 가사노동우위형은 상대적으로 가사노동공유가 많은 집단이며, 세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공유가 많은 집단이 전반적공유형이고, 전반적으로 적은 집단이 비공유형이었다. 가족구성원은 특정활동을 함께 함으로써 의사소통 기능을 향상시키고 친밀감을 높이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수 기혼성인은 요일과 관계없이 비공유형(평일 63%, 일요일 44%)이 가장 많았고, 평일의 경우 6할 이상의 기혼성인들이 가족과 식사, 가사노동, 여가를 함께 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이고, 일요일에도 4할 이상의 기혼성인들이 이들 활동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2시간 미만에 불과한 점에서 우리나라 다수의 성인들이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평일의 가족공유시간 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비공유형이 더 많았고, 여성은 가사노동우위형에서 남성보다 7배 정도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유형의 경우 다른 유형들보다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고, 모든 연령대에서 비공유형의 분포가 높은 점은 동일하나 그 비율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40대 > 50대 > 30대 > 20대 순으로 비공유형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맞벌이의 경우 홀벌이에 비해 비공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족공유시간 유형 중 비공유형에 속하는 집단은 노동시간이나 맞벌이 여부와 같은 노동관련 변수들의 영향이 크다는 점과 40, 50대 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경력의 정점에 있는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집단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장시간 근로의 직장내 조직문화개선, 일-삶의 균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근로자들의 노동 외 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의 확충, 가족친화적 제도의 시행 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장년층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평생직장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세대로 극심한 경쟁과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자리잡은 ‘일’ 중심의 생활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보이고 있고,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이 17.6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에서 초과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11) 가족공유시간 확보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의 삶은 ‘노동’ 뿐 아니라 여가, 개인생활, 가족생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업무 능률성 및 생산성 향상,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 해소, 가족간 관계향상, 삶의 질 향상 등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가에서는 노동정책, 가족정책, 여가정책 등 다차원의 정책적 접근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자기개발, 가족간 공유시간 확보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집중근무제(compressed work days), 집중근무시간제나 정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가족친화적 제도의 실질 시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노력은 가정에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향상을 통한 부모-자녀관계 개선 및

갈등해결, 상호간 이해증진과 함께 자녀에 대한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나아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과 청소년 인성문제, 인터넷 게임 중독 등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맞벌이 가정이 갖고 있는 자녀돌봄에 대한 고민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일요일의 유형별 특성을 보면 남성은 평일과 마찬가지로 여성보다 비공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전반적공유형, 여가우위형 순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비공유형, 전반적공유형, 가사노동우위형으로 나타나 남녀 모두 일요일에 비공유형이나 전반적공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다는 공통점과 함께 남성은 여가를 통해, 여성은 가사노동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차이를 보였다. 평일의 경우 남성은 비공유형, 여가우위형, 전반적공유형 순의 분포를 나타내고, 여성은 비공유형, 전반적공유형, 여가우위형 순의 분포를 보인 결과와 비교할 때 가족 공유유형별 순위와 그 상대적 분포에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남성들은 평일에 비해 일요일에 비공유형의 비율은 감소하고(평일 73.7%→일요일 47.4%), 특히 전반적공유형의 비율은 큰 증가를 보였으나(평일 5.0%→일요일 28.0%) 여성들의 경우 평일에 19.5%의 비율을 보였던 여가우위형이 일요일에 12.9%로 감소하고, 가사노동우위형은 평일에 7.3%의 비율이 보였던 것이 일요일에는 17.9%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가족공유시간을 분석한 해외 선행 연구자들이 꾸준히 제기하였던, 즉 여성들의 가족공유시간은 주로 ‘노동’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인데 여성들의 경우 어떤 유형의 가족공유 시간이든 그들 자신을 희생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가족생활주기 단계상 자녀양육기나 자녀교육기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주로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들의 가사 및 육아참여 증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남

성의 배우자 출산, 양육, 가사에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연구결과 나타난 가족시간공유 유형의 실태 및 특징을 통해 우리나라 성인들이 어떤 공유활동으로 가족간 결속을 강화시키고 있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전반적공유형, 여가우위형, 가사노동우위형, 비공유형은 우리나라 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기술, 협동심, 결속력 등의 인적자원 뿐 아니라 경제적 자원, 가족생활주기 등과 함께 가족구성원의 가치관, 목표 등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비공유형이 가장 우세한 유형으로 분류된 결과는 무엇보다 가족시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고, 가족간 분리로 나타난 각종 사회문제와 병폐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내에서는 구성원들의 가족시간 갖기 노력과 가족간 함께 하는 시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간 함께 하는 시간량을 토대로 가족공유 양상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부부간 공유양상이나 부모-자녀의 공유양상 등은 어떠한지, 부부간, 부모-자녀간 공유양상은 가족간 공유양상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이러한 공유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의 대상별 가족공유시간 유형에 관한 분석을 실시해 볼 것을 제안한다.

2009년의 국민생활시간조사는 가족공유시간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성인의 가족공유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공유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으나 함께 한 사람을 혼자, 배우자, 미취학자녀, 기타 가족·친척, 기타로만 분류함으로써 가족구성원 각자에 대해 보다 정밀한

분석이 불가능하고 특히 분석대상이 미성년 자녀(청소년)일 경우 부모에 대한 응답이 세분되어 있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므로 다음의 조사에서는 함께 한 사람의 구분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공유시간이 생활시간만족도와 관련이 깊은 점을 기초로 국민의 행복지수, 또는 삶의 질 지수에 가족공유시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앞으로 가족식사, 가족공유 가사노동 및 가족여가 각각에 대한 심층분석과 함께 부부를 대상으로 한 배우자공유시간 분석, 청소년 및 노년을 대상으로 한 가족공유분석 등과 같이 가족공유와 관련된 추후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외숙·이기영·이연숙·조희금·한영선·김하늬·김주희·윤용옥(2010). 식사, 가사노동, 여가를 중심으로 한 가족공유시간 분석. 2010년도 통계청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2) 김하영(200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여성의 여가활동 참가유형, 여가유능감 및 가족여가공유여부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3), 86-96.
- 3) 안동선(1982). 한국도시 주부의 여가유형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에 거주하는 비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 5) 윤소영·정유희(2003). 핵가족 부부의 가족여가활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가문화학회, 1(1), 79-95.
- 6) 이기영·김외숙·구혜령(1995). 부부의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113-126.
- 7) 이기영·이현아·김외숙·이연숙·조희금·이승미·김주희·한영선(2011). 가족공유 가사노동시간 및 영향요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2), 103-128.
- 8) 이뉴스투데이(2012). 수요일은 ‘No Game, No TV Day 가족 사랑의 날’ http://www2.ewestoday.co.kr/sub_read.html?uid=257622§ion=sc1
- 9) 이승미(1997). 가족공유시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0) 이연숙·김외숙·이기영·조희금·이승미·김하늬·한영선(2012). 가족공유 여가시간 및 결정요인: 부부, 미취학자녀, 그 외 가족 및 친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199-227.
- 11) 조희금·이승미·김외숙·이기영·이연숙·한영선(2011).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시간과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28.
- 12) 지영숙·이태진(2001). 도시가정의 가족여가 유형-자녀교육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53-165.
- 13) 천혜정(2004). 가족 여가 참여 동기 및 가족여가 활동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2), 1-13.
- 14) 통계청(2011). 2011년 「사업체노동력조사」
- 15) 한지수·이연숙(2005). 부인과 남편의 시간사용 유형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9(2), 41-57.
- 16) Barnet-Verzat, C., Pailhé, A. & Solaz, A.(2007). Being together or entertaining together? The impact of children on couples' activity synchronization. working paper.
- 17) Bianchi, S. M., & Robinson, J.(1997). What did you do today? Children's use of time, family composition, and the acquisition of social capital.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32-344.
- 18) Bonke, J. & McIntosh, J.(2005). Household time allocation-theoretical and empirical results from Denmark. *electronic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2(1), 1-12.
 - 19) Bryant, W. K. & Wang, Y.(1990). Time together, time apart: An analysis of wives' solitary time and shared time with spouse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1), 89-119.
 - 20) Bryant, W. K. & Zick, C. D.(1996). An examination of parent-child shared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1), 227-237.
 - 21) Chalasani, S.(2007).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education and their time with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Time Use Research*, 4(1).
 - 22) Cooksey, E. C., & Fondell, M. M.(1996). Spending time with his kids: Effects of family structure on fathers' and children's liv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693-707.
 - 23) Daly, K. J.(1996). *Families and time: Keeping pace in a hurried culture-*. Thousand Oaks: Sage.
 - 24) Daly, K. J.(2001). *Deconstructing Family Time: From Ideology to Lived Experi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283-294.
 - 25) Davey, A. J. & Paolucci, B.(1980). Family interaction: A study of shared time and activities. *Family Relations*, 29(1), 43-49.
 - 26) Eisenberg, M. E., Olson, R. E., Neumark-Sztainer, D., Story, M., & Bearinger, L. H. (2004). Correlations between family meals and psychosocial well-being among adolescents. *Archives Pediatric And Adolescent Medicine*, 158, 792-796.
 - 27) Franko, D. L., Thompson, D., Affenito, S. G. & Barton, B. A.(2008). What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als and adolescent health issues? *Health Psychology*, 27(2), 109-117.
 - 28) Freysinger, V. J.(1994). Leisure with children and parental satisfaction : Further evidence of a sex difference in the experience of adult roles and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6(3), 212-226.
 - 29) Gatenby, R.(2004). Married only at the weekend? A study of the amount of time spent together by spouses.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30) Glorieux, I., Minnen, J. & Tienoven, T.(2010). *Couples Time Together and the Quality of Life*. IATUR, 32nd Time Use Conference.
 - 31) Hallberg, D. & Klevmarck, A.(2003). Time for children: A study of parent's time allocat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6(2), 205-226.
 - 32) Hofferth, S. L., & Sandberg, J. F.(2001). How American children spend their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295-308.
 - 33) Holman, T. B.(1988). Leisure-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A further tes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1), 69-77.
 - 34) Kalenkoski, C., Ribar, D. & Stratton, L.(2005). Parental child care in single parent, cohabiting, and married couple families: Time diary evidence from the United Kingdom. *American Economic Review*, 95(2).
 - 35) Kingston, P. W. & Nock, S. L.(1987). Time together among dual earner coupl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 391-400.
 - 36) Larson, R. W., Gillman, S. A. & Richards, M. H.(1997). Divergent experiences of family leisure: fathers, mothers,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1), 77-97.
 - 37) Larson, R. W. & Verma, S.(1999). How children

- and adolescents spend time across the world: Work, play, and developmental opportunities. *Psychological Bulletin*, 126, 701-736.
- 38) Lesnard, L.(2003). Synchronicity within Dual-Earner Couples: a Double Bind. IATUR Conference 2003.
- 39) Orthner, D. K.(1975).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1), 91-102.
- 40) Orthner, D. K. & Mancini, J. A.(1990). Leisure impacts on family interaction and cohes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2), 125-137.
- 41) Rapoport, R. & Rapoport, R. N.(1975). Leisure and the family life cycle. London: Routledge & K. Paul. 270-320.
- 42) Rizavi, S. S. & Sofer, C.(2010). Time together among French couples. IATUR, 32nd Time Use Conference.
- 43) Shaw, S. M.(1997). Controversies and contradictions in family leisure: An analysis of conflicting paradigm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1), 98-112.
- 44) Shaw, S. M. & Dawson, D.(2001). Purposive leisure: Examining parental discourses on family activities. *Leisure Sciences*, 23, 217-231.
- 45) Snyder, D. K.(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46) Spitze, G.(1986). The Division of Task Responsibility in U.S. Households: Longitudinal Adjustments to Change. *Social Forces*, 64(3), 689-701.
- 47) West, P. C., & Merriam, L. C.(1970). Outdoor recreation and family cohesiveness: a research approac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4), 251-259.
- 48) Yeung, W. J., Sandberg, J. F., Davis-Kean, P. E. & Hofferth, S. L.(2001). Children's time with fathers in intac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1), 136-154.
- 49) Zabriskie, R. B., & McCormick, B. P.(2001). The influences of family leisure patterns on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Family Relations*, 50(3), 281-289.

- 투 고 일 : 2012년 3월 31일
- 심 사 일 : 2012년 4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5월 24일